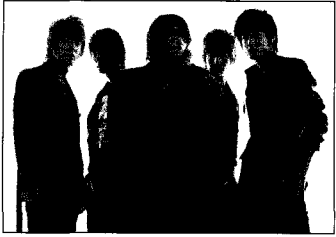


연예인 이름에도 상표바람이 분다



가수 이름 부문에 대한 출원이 가장 많은 '동방신기'. 인기도에 따라 그 이름에 대한 출원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제목 등의 상표출원 급증 추세에 힘입어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에 대한 브랜드화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의 인기검색순위 50위까지의 유명 연예인의 '이름'에 대한 출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5년 4월말까지 총 1백66건이 출원되었는데, 이 중 2003년까지 6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부터 2005년 4월말까지 1년 4개월 사이에 98건이 출원되어 유명 연예인의 이름에 대한 출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가수 86건, 텔런트 46건, 개그맨 34건 순으로 가수 이름의 출원이 가장 많았으며, 개인별로는 가수는 동방신기 35건, 테이 30건, 보아 12건, 개그맨은 리마리오 17건, 이경규 8건, 텔런트는 하리수 18건, 윤사마 12건 순으로 출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 상품별로는 가수의 경우 음악공연업이나 테이프 및 MP3 등 음악관련 상품에, 개그맨은 음식과 건강관련 상품, 텔런트는 화장품과 패션 및 액세서리 관련 상품에서 주로 출원되고 있다.

연예인 이름의 상표출원 증가세는 연예인 소속사 등의 스타 이름 브랜드화 전략과 스타의 인기도에 따른 광고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은 '연예인 이름은 '스타 이름=돈'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상표 다등록 100대 기업 발표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최근 5년 동안의 상표 다등록 1백대 기업을 발표하였고, 그 중 국내법인이 77개, 외국법인이 19개이며, 국내 자연인도 4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후 2005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서비스업을 제외한 상품류에 대한 상표 다등록 1백대 기업의 1위는 태평양(3천4백62건), 2위는 롯데제과(1천4백44건), 3위는 농심(1천1백5건), 4위는 두산(7백92건), 5위는 삼성전자(6백85건)로 집계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선두주자로는 7위 일본 산리오(6백27건), 8위 미국 디즈니엔터프라이즈(5백85건), 25위 미국 월마트스토어즈(3백45건) 등이 돋보이고 있다.

이들 상표 다등록 업체는 여러 업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력전문상품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전문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나드리화장품과 태평양은 화장품에 각각 97%, 84%를, 롯데제과, 해태제과, 농심은 제과분야에 각각 95%, 90%, 89%를, 애경산업은 세제분야에 93%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백대 기업의 상품분야별 분포를 보면, 제과류 분야에 16개 업체, 화장품 분야에 15개 업체, 전자·정보통신 및 약제류 분야에 각각 13개 업체, 그 뒤를 이어 의류분야에 11개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백대 다등록 업체 중 국내 자연인 4인은 각각 72위, 85위, 89위, 98위로 등록되었으며, 농·수·축산물 분야, 청량음료 분야, 의류·신발 분야 및 귀금속제 분야에 각각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업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합니다>

지난 제25호 기사 '충남중기종합지원센터 지역 첫 지식재산센터로 지정' 기사는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특허청에 지역 지식재산센터 지정신청(05년 1월 28일)을 하고, 특허청에서 지역 지식재산센터 지정 관련 현장 실사를 마친 상태임'으로 정정합니다.

특허정보 조사, 국가 R&D에 반드시 필요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특허정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최근 금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 연구과제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4백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연구기획이나 연구과제 선정에서 특허정보조사가 유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88.7%가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허청은 상반기에 산자부 및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총 3백9개 과제(기획과제 28개, 평가과제 281개)를 대상으로 특허정보 조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산자부의 28개 중장기대형 연구기획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동향 조사사업에 참여하였던 기획위원 2백3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2.7%가 특허동향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특허동향 조사를 통해 추측했던 사실 객관화(43.1%),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25.7%) 및 경쟁력 있는 과제 도출(19.1%)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90.5%가 연구기획과정

에 특허심사관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획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기획위원의 94.8%가 향후 특허동향을 조사할 때 통계적인 분석(이하 정량분석)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기술분석(이하 정성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성분석을 하여야만 정량분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36%),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33.1%) 및 핵심특허와 공백기술을 발견(30.6%)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산자부와 중기청 단기소형 연구개발사업의 2백81개 평가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선정에 선행특허 조사 결과를 활용한 평가위원 1백9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6.5%가 선행특허조사가 과제 평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연구과제 평가시 선행특허 조사가 전문가 평가를 보완(51.2%) 및 중복투자를 방지(21.9%)할 수 있고, 과제 신청자에게도 지식적인 도움(20.7%)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특허정보 조사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조사 결과가 연구개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평가기간의 연장, 평가항목의 조정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화장품, 한방(韓方)으로 '한방' 먹었다

최근 환경친화적이고 피부 안전성이 우수한 한방화장품의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따른 특허출원도 급증하고 있다. 한방화장품은 전통적인 한의학에 기반을 두고 한방미용법을 이용해 천연한약재를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말하며 약리학적 효능이 뛰어나면서도 피부에 대한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96년 화장품 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외국산 화장품들이 밀려들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화장품업체가 수세에 몰렸으나, 최근 소비자들이 한방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되고 선진국 화장품을 모방하지 않은 독창성과 차별성을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한방화장품을 무기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치고 있다. 국내 화장품의 전체 시장규모는 2004년을 기준하여 약 5조4천9백60억원으로 최근 2~3년간 큰 변동이 없었으나, 한방화장품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04년에는 2003년의 3천7백억원보다 30% 이상 성



40~50대 주부들의 전용으로 여기던 한방화장품의 사용층이 이제는 20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이에 대한 개발도 활발해지고 있다.

장한 5천억원대에 달했으며 올해(2005년)는 약 8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91년부터 2004년(공개건)까지 총 5백58건이 출원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 총 25건으로 전체 한방화장품 관련 특허출원의 4.5%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총 4백69건으로 전체 대비 84.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신도톨이 한약재료를 이용한 한방화장품 개발로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기존 선진국 화장품제조업체들을 '한방' 먹이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에도 원료의 국산화를 통한 화장품 개발이 경쟁력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토대로 산·학·연이 연계한 화장품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보통신 분야 상표등록 붐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상표등록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2000년 이후 2005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상표등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가 전체 34개 상품분류 중 13%를 차지하여 종래 상표등록의 주 품목이었던 화학공업, 기계, 의류 분야의 상표등록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을 제외한 상품분야별 상표등록 동향에 따르면, 전체 상표등록 19만9천5백48건 중 1위 전기·전자·정보통신 2만5천4백9건(12.7%), 2위 의류·신발 1만9천9백87건(10%), 3위 화장품 1만4천7백57건(7.4%) 등으로 집계 되었으며, 전기·정보통신 분야의 상표 다 등록 업체는 삼성전자와 LG텔레콤, KTF,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 순위이다. 이는 전자·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R&D투자로 첨단 특허기술 개발에 힘입어 이 분야의 특허 등록건수가 전체의 50% 선을 계속 유지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상표등록에 있어서도 다른 상품분야보다 이 분야의 상표등록이 현저하게 앞서가고 있어 전자·정보통신 분야가 전체 지식재산권 등록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특허등록건수는 2002년 49.9%, 2003년 47.9%, 2004년 4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표등록 건수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2002년 13.4%, 2003년 13.7%, 2004년 1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